

# 수피아여중, 종별농구선수권대회 우승

결승서 온양여중 61-48로 제압  
연맹회장기·소년체전 이어 3관왕  
임연서 21득점 14리바운드 MVP

수피아여자중학교가 27일 영광스포티움 보조체육관에서 열린 제77회 전국남녀종별 농구선수권대회 여중부 우승을 차지했다. 2022연맹회장기 전국중고농구대회와 제51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 이어 올 시즌 세 번째 우승이다.

수피아여중은 이날 여중부 결승에서 온양여중을 61-48(9-11 20-10 18-14 14-13)로 이겼다.

온양여중은 지난 5월 소년체전 결승 상대. 체전 결승전 당시 1쿼터에서 리드를 내준 뒤 역전에 성공해 금메달을 획득했던 수피아여중은 이날 압도적인 경기력으로 온양여중을 격파, 전국 여중부 최강 실력을 과시했다.

1쿼터는 초반 득점 난조로 리드를 내줬으나 2쿼터에서 역전에 성공했다. 후반전도



수피아여중이 27일 영광스포티움 보조체육관에서 열린 제77회 전국남녀종별농구선수권대회 여중부 결승에서 온양여중을 꺾고 우승했다. /수피아여중 제공

수피아여중이 주도권을 잡으면서 13점 차 대승을 거뒀다. 수피아여중의 이 대회 우승은 2018년 제73회 대회 이후 4년 만이다.

송지후(12득점 8리바운드)와 이가현(13득점 8리바운드)이 두자릿수 득점으로 수피아여중의 승리를 이끌었고 21득점 14리바운드로 활약한 임연서는 대회 최우수선

수에 선정됐다. 수피아여중은 8강에서 연맹회장기 결승 상대였던 마산여중을 만나 88-55 대승을 거뒀고 4강에서는 동주여중을 83-68로 이겨 결승에 올랐다. 올 시즌 농구 여중부는 수피아여중의 독무대다.

이가현·박정서·송지후(이상 3년)·임연서·김사랑·양효정(이상 2년)·김담희·임세운·손세훈(이상 1년)으로 구성된 최고의 전력, 선수들의 집중력과 노력, 그리고 윤세나 감독·이선영 코치의 지도력이 더해진 결과다. 수피아여중은 지난 5월 이미 최강의 실력

을 과시했다. 5월 11일 열린 2022연맹회장기 전국중고 농구대회에서 우승하며 4년 만에 전국대회 우승을 꿰차더니 5월 31일 열린 제51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도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특히 한 시즌 최고 대회인 소년체전에서 우승, 지난 2001년 부산대회 이후 21년 만에 체전 금메달을 거머쥐는 쾌거를 거뒀다. 이선영 수피아여중 코치는 “소년체전이 끝난 뒤 우승에 만족하지 말고 열심히 하자고 선수들에게 당부했는데 선수들이 정말 열심히 하고 약속을 잘 지켜줬다. 너무 고맙다”고 선수들을 칭찬했다. 시즌 3관왕 비결에 대해서는 “연습밖에 없었다. 선수들에게 늘 땀 흘리고 운동할 때 운동하자고 말했고, 선수들이 잘 따라줬다. 운동에 집중했다”면서 “초등부 시절부터 각종 대회 결승까지 경험해본 선수들이다. 특히 올해 우승을 하면서 자신감도 생긴 것 같다. 잘 이끌어주시는 윤세나 감독선생님께도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수피아여중은 올 시즌 한 개 대회만을 남겨놓고 있다. 8월 2-9일 열리는 2022 한국중고농구 주말리그 왕중왕전이다. 이 코치는 “주말리그 조1위를 했다. 올 시즌 마지막 대회인 왕중왕전에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선수들과 함께 준비하겠습니다”고 밝혔다. /최진화 기자

## 순천시청 박다솔 실업유도선수권 ‘금’

김혜미 은메달...단체전 동메달

순천시청 박다솔(26)이 25-27일 안산 상록수체육관에서 열린 2022 안산 전국실업유도선수권대회에서 금메달을 획득했다.

박다솔은 이번 대회 여자일반부 -57kg급 정상에 올랐다.

1회전에서 해주희(고창군청)를 만나 누르기로 한판승을 거둔 박다솔은 준결승에서 신유나(광주도시철도공사)를 안뒤축후리기로 절반승을 따내 결승에 올랐다.

결승에서는 서수빈(고창군청)과 치열한 접전 끝에 발다리로 절반승을 거둬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순천시청 김혜미(27)는 여자일반부 -70kg급에 출전, 1회전에서 양지영(제주도청)을 업어치기 절반승으로 꺾고 준결승에 진출했다. 준결승에서 기관승 거둔 김혜미는 결승에서 부상으로 기권하면서 은메달



순천시청 박다솔(왼쪽 두 번째)이 25-27일 안산 상록수체육관에서 열린 2022 안산 전국실업유도선수권대회 여자일반부 -57kg급 금메달을 획득했다. /전남도체육회 제공

을 기록했다. 순천시청은 여자부 단체전에서 충북도청과 포항시청에 이어 3위로 동메달을 획득했다.

남자일반부에서는 여수시청 정진형이 +100kg급에서 동메달을 획득했다. /최진화 기자

## KIA, ‘의로운 시민들’ 초청 승리기원 시구

KIA 타이거즈가 광주-기아 챔피언스 필드에서 열린 2022 신한은행 SOL KBO리그 NC 다이노스와의 경기에서 ‘의로운 시민들’을 초청, 릴레이 승리기원 시구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28일 경기에선 유대환·최민혁군(광주제일고3년)이 각각 시구와 시타를 한다. 이들은 지난달 광주 남구의 한 공원에서 성추행

현장을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 범인 검거에 기여해 남부경찰서장 표창을 받았다. 한편 ‘의로운 시민’으로 선정된 김지수씨(43)도 27일 열린 경기에 앞서 KIA 승리기원 시구자로 나섰다. 김씨는 지난해 2월 광주시청 화장실에서 쓰러진 노인을 발견, 응급처치를 해 노인의 목숨을 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조혜원 기자



광주대 태권도부가 지난 22-26일 김해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제57회 대통령기 전국단체대항태권도대회에서 은메달 1개와 동메달 3개를 획득했다. /광주대 제공

## 조선대·광주대, 대통령기 태권도 메달 레이스

임진홍 ‘금’ 김지혜·김민경 ‘은’

조선대학교와 광주대학교가 22-26일 김해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제57회 대통령기 전국단체대항 태권도대회에서 메달 레이스를 펼쳤다. 조선대는 금메달 1개를 비롯해 은메달 1개와 동메달 2개를, 광주대는 은메달 1개와 동메달 3개를 획득했다.

조선대의 금메달 주인공은 임진홍(3년)이다. 임진홍은 남대부 -74kg급에서 충남대 김대호를 꺾고 우승을 차지했다.

김민경(1년)은 여대부 -57kg급에서 은메달을 획득했다.

임홍섭(4년)은 남대부 +87kg급에서, 김민주는 여대부 +73kg급에서 각각 동메달을 기록했다.

광주대 김지혜(1년)는 여대부 -67kg급에서 은메달을 품에 안았고, 오재운(1년)은 -49kg급 동메달을 획득했다.

이원준(2년)은 남대부 -87kg급, 남승우(2년)는 -58kg급에서 각각 동메달을 획득했다. /최진화 기자

## ‘세계선수권 은메달’ 황선우 수영연맹 포상금 2천만원

한국 선수로는 11년 만에 푼코스(50m) 세계수영선수권대회 경영 종목에서 메달을 수확한 황선우(19·강원도청)가 대한수영연맹 포상금을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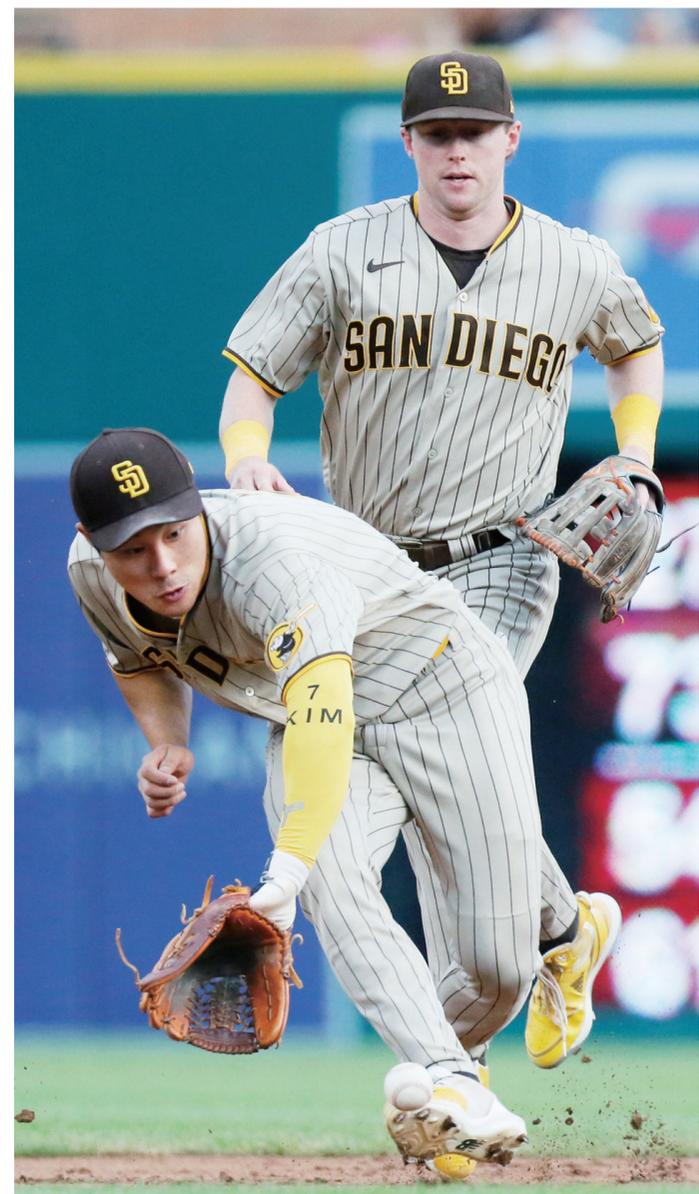
대한수영연맹은 27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2022 국제수영연맹(FINA) 세계수영선수권대회 국가대표선수단 해단식 및 메달 포상금 전달식을 개최했다.

지난달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열린 세계선수권대회 남자 자유형 200m에서 1분 44초47의 한국 신기록을 세우고 은메달을 딴 황선우에게는 포상금 2,000만원이 돌아갔다.

수영대표팀 이정훈 총감독에게는 300만원, 전동현 코치에게는 200만원의 포상금이 주어졌다.

황선우의 은메달은 푼코스 세계선수권대회 경영 종목에서 한국 선수로는 2011년 중국 상하이 대회 남자 자유형 400m 금메달리스트 박태환 이후 11년 만에 수확한 메달이었다. 자유형 200m에서는 2007년 호주 멜버른 대회 박태환의 동메달을 넘어선 한국 수영 사상 최고 성적이었다.

황선우는 이번 대회에서 은메달 획득뿐만 아니라 한국 신기록 5개를 세우는 역명을 펼쳤다. /연합뉴스



김하성의 수비 27일(한국시간) 미국 미시간주 디트로이트 코메리카파크에서 열린 2022년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 디트로이트 타이거스와 경기에서 샌디에이고 파드리스 김하성이 미구엘 카브레라의 타구를 잡아내고 있다. 샌디에이고가 6-4로 역전승을 거뒀다. /AP-연합뉴스